

WEEKLY REPORT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02
SEPT 4 2019

발간년월 2019년 9월 4일 (통권 제102호)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+82-51-797-4665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금년 말, 러시아 로스토프~크림공화국 철도길 열려
- 국제운송회랑 '프리모리에-1' 처리물동량, 약 1.8배 증가
- 자밍우드 국경검문소, 내년 말까지 신축 공사 예정
- TAP 가스 파이프라인, 내년 첫 가스 공급 개시 예정
- 러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, 금년 상반기 26% 성장
- 제5차 동방경제포럼, 신동방정책 '중간평가' 될 터...제2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

주요 통계
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가격



주요 동향



금년 말, 러시아 로스토프~크림공화국 철도길 열려

■ 2019년 12월 러시아 로스토프시와 크림반도 사이를 이어주는 철도운행 시작

- 지난 8월 23일 크림 공화국의 세바스토폴과 심페로폴의 철도역을 방문한 예브게니 디트리히 러시아 연방 교통부 장관은 올 연말까지 로스토프와 크림 공화국을 이어주는 철도길이 완공 될 것이라고 밝힘
- 크림 공화국의 철로는 약 1,300km이며 최근 3년간 300km의 구간이 정비되었음. 현재 세바스토폴 기차역은 수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며 심페로폴 기차역은 수리 중임

그림 1. 크림공화국 철도 노선



- 러시아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휴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, 11개의 노선이 운영을 시작 할 예정이며, 열차는 크림 공화국과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, 크라스노다르, 로스토프 온 돈, 키슬로보츠크, 무르만스크, 카잔, 아르한겔스크, 첼라빈스크, 페름, 노보시비르스크, 브란스크, 보르쿠트를 연결하게 됨
- 케르치 해협을 지나는 철로를 통해 매일 12개의 화물열차와 35개의 여객열차가 운행될 예정임
- 러시아 로스토프와 크림반도 사이 케르치 다리의 철로 부분을 먼저 시운전 한 후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며, 30개의 기차가 페르보마이스크 역에서 운영을 시작하게 됨

- 그러나 현재까지 열차 운행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. 러시아 철도청은 크림 열차의 운영으로 인해 서방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. 이 경우, ‘크림 철도청’이 열차 운영을 맡게 될 수도 있다고 리아 노보스티(ria.ru)가 전함

남가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
(neba95@naver.com)

참고자료

- a) http://www.panram.ru/news/transport-i-dorogi/v-dekabre-iz-rostova-v-krym-nachnut-khodit-poezda/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(2019.8.28일 검색)
- b) <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4073012?query=%D0%BA%D1%80%D1%8B%D0%BC%D1%81%D0%BA%D0%BE%D0%B9%20%D0%B6%D0%B5%D0%BB%D0%B5%D0%B7%D0%BD%D0%BE%D0%B9%20%D0%B4%D0%BE%D1%80%D0%BE%D0%B3%D0%B8>(2019sus 8월 28일 검색)
- c) <https://en.wikivoyage.org/wiki/Crimea>

국제운송회랑 ‘프리모리에-1’ 처리물동량, 약 1.8배 증가

■ 극동지역위원회의 항만 및 석유 화물운송·하역 분과회의에서 국제운송회랑 ‘프리모리에-1’에 대한 성과를 발표함

-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제운송회랑 ‘프리모리에-1’ 처리물동량이 약 1.8배 증가했으며 이미 7월에 2018년 전체 처리물동량을 초과함
- ‘프리모리에-1’에서는 20ft 컨테이너 약 3,934개가 처리되었으며 처리품목으로는 석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
- ‘프리모리에-2’에서는 20ft 컨테이너 약 2,145개가 처리됨

그림 2. 극동지역위원회 분과회의장



■ 러시아 철도공사에 따르면 금년 7개월간 프리모리에 국제운송회랑에서 약 8,6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 중 석탄이 약 6,004만 톤으로 약 70% 이상을 차지함

- 2018년에는 극동항만과 중·러 국경 간 약 8,000만 톤의 석탄이 운송됨
- 이와 같이 석탄 운송량 증가에 따라 쿠즈바스 석탄 생산 또한 약 8.2% 증가한 약 450만 톤을 생산함
- 또한 현재 극동도로의 약 67%의 물동량이 극동항만으로 운송되며 이는 하루에 화차 약 4,000대 가량의 물동량임

■ 연해주 지방정부에 따르면 국제운송회랑 ‘프리모리에-1’와 ‘프리모리에-2’는 지역개발전략 중 하나로 2025년에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으로 봄

- 국제운송회랑 현대화 개발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, China Railway Group Limited, Guanda 기업이 참여 중임
-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12년 후에는 ‘프리모리에-1’과 ‘프리모리에-2’가 상용화됨에 따라 러시아 GDP에 연간 약 290억 루블을 기여할 것으로 봄
- 또한 국제운송회랑을 통해 연간 약 57억 루블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봄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(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mtk_-primore-1-_pochernel_ot_uglya.html, <https://www.pri-morsky.ru/news/164469/>(검색일: 2019년 9월 2일)

자밍우드 국경검문소, 내년 말까지 신축 공사 예정

■ 몽골-중국 국경에 위치한 자밍우드(Zamiin-uum) 국경검문소, 금년 9월부터 신축 공사 예정

- 본 공사는 몽골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‘검문소 신축’법에 근거한 것이며, 검문소의 국제 표준 수준 달성 및 물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임
-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본 공사는 1년간 진행되어 2020년 10월에 완공 예정
- 본 신축 공사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2억 1백만 위안(750억 투그릭)의 원조를 받음

■ 본 국경검문소는 이전부터 좁은 면적과 수용의 한계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

- 자밍우드 국경검문소는 몽골 전체 방문 승객의 40%, 여객 수송 장비의 76%가 통과하는 몽골의 가장 큰 국경검문소이나, 낙후된 인프라와 일일 수용 차량의 한계로 그동안 본 지역을 통과하는 승객 및 운송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음
- 신축 검문소의 면적은 9,500m²로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크기이며, 전체 면적은 기존 대비 8배 이상 확대됨
- 또, 일일 대형 화물 수송 차량은 기존 대비 3배, 승객 수송 차량은 7배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, 이는 30대의 승객 열차, 28대의 화물 열차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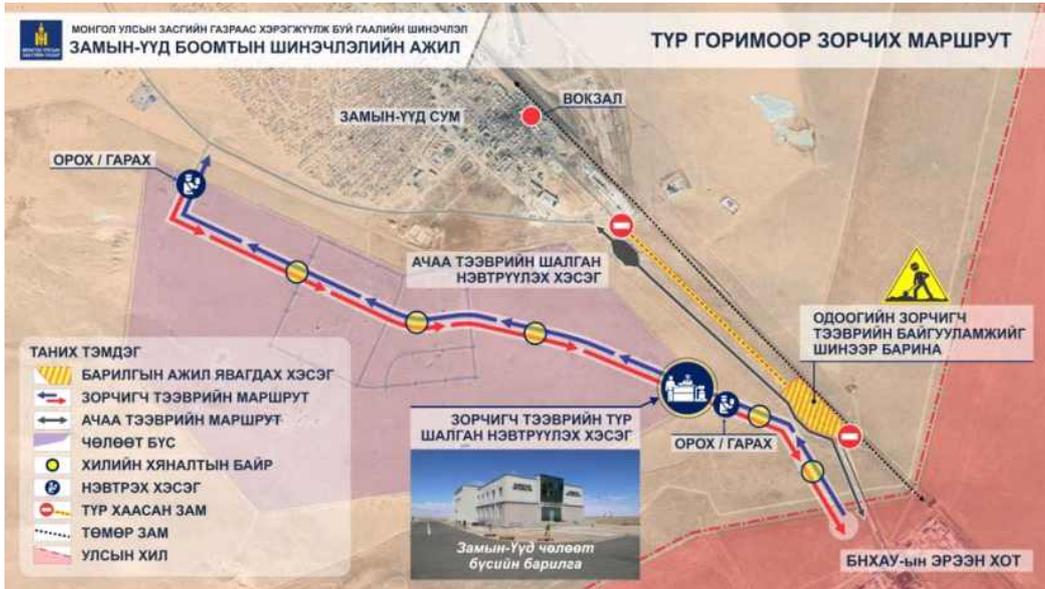
■ 국경검문소의 신축 및 인프라 구축으로 몽골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

- 긴급관리센터와의 원격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스템, 보안검색대를 이용한 신속한 검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
- 이를 통해 기존보다 국경 통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, 몽골의 국제 무역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

■ 본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혼란 최소화

- 국경 통과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 검문소 및 관련 도로망,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음
- 임시 검문소는 기존 검문소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밍우드 자유무역지대를 통과함
- 임시 검문소는 승객 수송 차량이 통과하며, 화물 수송 차량은 기존 노선과 동일함

그림 3. 자밍우드 임시 검문소 위치 및 임시 우회도로



신민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
(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montsame.mn/mn/read/199407> (2019.9.3. 검색)
- b) <https://www.immigration.gov.mn/blog/post/zamyn-d-boomtyn-jl-azhillagaag-esdgeer-saryn-1-nees-tr-gorimd-shilzhlee> (2019.9.3. 검색)

TAP 가스 파이프라인, 내년 첫 가스 공급 개시 예정

■ 카스피 해 석유가스자원을 유럽으로 연결하는 TAP(Trans Adriatic Pipeline) 프로젝트의 첫 가스 공급이 2020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

- TAP 사업은 터키,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 3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남부 가스 회랑 (Southern Gas Corridor) 사업의 일환으로, 사업 규모는 45억 유로(한화 약 6조 원)임
- 파이프라인은 아제르바이잔~조지아~터키~그리스~알바니아를 연결, 아드리아 해(Adriatic Sea)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에 도달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음
- 루카 스케파티(Luca Schieppati) TAP 컨소시엄 상무이사는 현재 기술 관리 및 개통 준비를 포함한 세부적인 작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라고 언급했음. 동시에 컨소시엄 측은 자사 석유가스 운송사업자 및 개별 교통사업자 관리, 자원거래 운영사업자 관리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- 이외에도 TAP 컨소시엄은 거래 차원에서 파이프라인이 경유하는 3개국 내의 유관기관들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면허 및 인증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

■ 아울러 스케파티 이사는 TAP 프로젝트의 그리스~알바니아 구간의 파이프 매설이 올해 말까지 100%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

- TAP 사업은 전반적으로 석유가스의 비중이 낮은 유럽 경제를 돕고 유럽의 자원수급 다변화 및 경쟁력 향상, 공급망 개선 및 증진 효과 등의 기대를 받고 있음
- 또한 TAP는 그리스와 불가리아 양국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Interconnector Greece-Bulgaria(IGB)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 경유국~제3국 간 석유가스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음. 이를 통해 자원 수급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수입국들과 수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호혜적인 관계가 증진될 수 있음

그림 4. TAP(Trans Adriatic Pipeline) 개요



그림 5. IGB(Interconnector Greece-Bulgaria) 개요(붉은 선)



조용성 현지리porter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
(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denizxeber.az/2019/08/28/trans-adriatik-boru-k%c9%99m%c9%99ri-tap-ilk-qazin-ve-rilm%c9%99sin%c9%99-hazirdir/> (2019.08.28. 검색)
- b) <http://interfaxenergy.com/gasdaily/article/20343/pipeline-progress-bridges-bulgarias-energy-divide> (2019.08.28. 검색)

러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, 금년 상반기 26% 성장

■ Data Insight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은 7,725억 루블(210억 달러)로 전년 대비 26% 성장함

- 온라인 주문 수는 1억 9천 9백만 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주문 횟수보다 44% 증가함

■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Wildberries의 2019년 시장 점유율은 31%에 달함

- Wildberries는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18년 1,600개에서 올해 5,000개(러시아,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 등)로 상품 수령 지점이 증가했음

■ 러시아 최초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Ozon의 주문 수는 85% 증가한 1,150만 건으로 통화 기준으로는 80% 증가한 32억 루블(4억 7,800만 달러)을 기록함

- Ozon은 배송 지점 수를 늘리고 배송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문 빈도수를 높였음

■ 러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은 Top 3외 Top 500의 업체 주문 수도 2018년도 14%에서 21%로 증가함

- 러시아는 매년 15회 이상 주문하는 온라인 이용객 수가 25%씩 증가하고 있으며, 실제 경제와 일반적인 소비 시장보다 10배 빠르게 성장 중임

- 온라인 판매는 현재 러시아 총 소매 매출의 약 4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두 배씩 증가 하고 있어 2021년까지 소매 매출의 8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

권보배 전문연구원

(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)

참고자료

- <https://russiabusinesstoday.com/economy/e-commerce-market-in-russia-grows-26-in-first-half-of-2019/> (2019.09.04. 검색)
- http://www.datainsight.ru/en/ecommerce_size_1h2019_en (2019.09.04. 검색)
- <https://www.intellinews.com/russian-online-retailer-wildberries-posts-85-growth-in-revenues-in-1q19-159491/> (2019.09.04. 검색)

제5차 동방경제포럼, 신동방정책 ‘중간평가’ 될 터 … 제2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

■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현지시간 4일부터 6일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됨

- 지난해 4차 포럼에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약 60여 개국의 기업 및 정부 인사 약 6,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음

■ 러시아 정부는 올해 포럼의 대주제를 그간 정부가 펼쳐온 신동방정책의 중간평가라고 함

- 이에 대한 세부주제로 △극동러시아의 新성장동력(New Solutions for Accelerating Economic Growth) △사업환경 개선(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) △극동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협력방안(The Far East and Asia Pacific: Fostering Collaboration) △극동러시아 생활환경 개선(New Solution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) △국별 양자세션(Business Dialogue)으로 진행됨

■ 본 프로그램 외에도 아태국가 간의 다양한 협정 및 부대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

- 주최측에 따르면 한국 등 아태국가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힘
- 이와 관련해 러시아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아태지역에서 2020년 및 2022년 올림픽 행사를 주최할 때 국가 올림픽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언급함

■ 또한 제5차 러시아-중국 미디어포럼이 개최될 예정임

- 양국 간 미디어 포럼은 매년 주요행사 내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러중 디지털환경 상호협력 방안 및 공동제작, 미디어 표준 수립 관련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

■ 한편 오는 6일에는 ‘새로운 기회 모색’이라는 주제로 제2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됨

- 올해 2차 포럼에서는 한-러 양국 간 극동지역 경제협력과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-러 비즈니스 성공 유망 사례를 공유할 계획임
- 한국에서는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지였던 포항의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2020년 개최지인

송호철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, 전라북도, 충청남도,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표단이 파견
돼 참석할 예정임

전명수 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

(+7 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<https://www.dv.kp.ru/daily/27021/4083881/>(검색일: 2019년 9월 2일)



주요 통계



표 1.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가격(2019년 8월 26일 ~ 9월 1일)

(단위: 루블, %)

연방관구	어종	1Kg당 가격	가격 변동률	
			주간	8월 26일 ~ 9월 1일
극동연방관구	태평양 대구	175.0	0.0	-11.6
	명태	107.0	0.0	+9.2
	태평양 청어	58.0	0.0	+16.0
	가자미	97.0	-1.0	+7.8
북서 연방관구	해덕대구	208.0	0.0	-1.0
	대서양 대구	250.0	+0.8	-15.3
	고등어	122.0	+1.7	-2.4
	대서양 청어	72.0	+2.9	+2.9
중앙 연방관구	고등어	130.0	+2.4	0.0
	명태	125.0	+1.6	+6.8
	열빙어	115.0	0.0	+130.0
	대서양 청어	85.0	+2.4	+16.4

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
(thkim@kmi.re.kr/051-797-4783)

참고자료

a) 자료: <http://www.nfr.ru/media/files/monitoring/2019/monitoring.02.09.2019.pdf> (검색일: 2019년 9월 2일)